

인 사 말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인 제12회 은정장학금 수혜자와 제5회 나란다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수상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지난 2002년 월암당 정대 큰스님께서 불교학 저변과 인재불사의 크나큰 원력으로 설립하신 장학법인입니다.

큰스님께서 살아생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늘 강조하셨기에 몸소 실천하시며 인재를 아끼셨고, 어려운 이웃을 쉽게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은정은 바로 이러한 큰스님의 고귀하고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매년 학술연구단체, 불교활동단체, 학자와 학생,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활동지원금과 장학금, 생활격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나란다축제’를 개최해 어린이·청소년, 군장병, 사관생도, 일반인, 외국인까지 계층별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의 확장과 불자인재 양성을 위해 2009년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로 시작한 ‘나란다축제’는 학생들과 장병, 사관생도, 외국인까지 포함해 1만 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불교계 최대의 교학축제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이 희망이며, 미래’라는 가르침을 새겨, 불교계 최대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들을 것이며, 작은 몸짓도 소홀히 흘려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있는 곳에 늘 ‘은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을 가꾸어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도반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며, 작으나마 한국불교 발전의 단단한 주추가 되도록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은정재단의 모습은 은정장학후원회 고문님, 자문위원님, 운영위원님, 그리고 후원회원분들께서 언제나처럼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나란다축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운영본부와 종립학교 교법사님, 어린이청소년 지도법사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7년 10월 26일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